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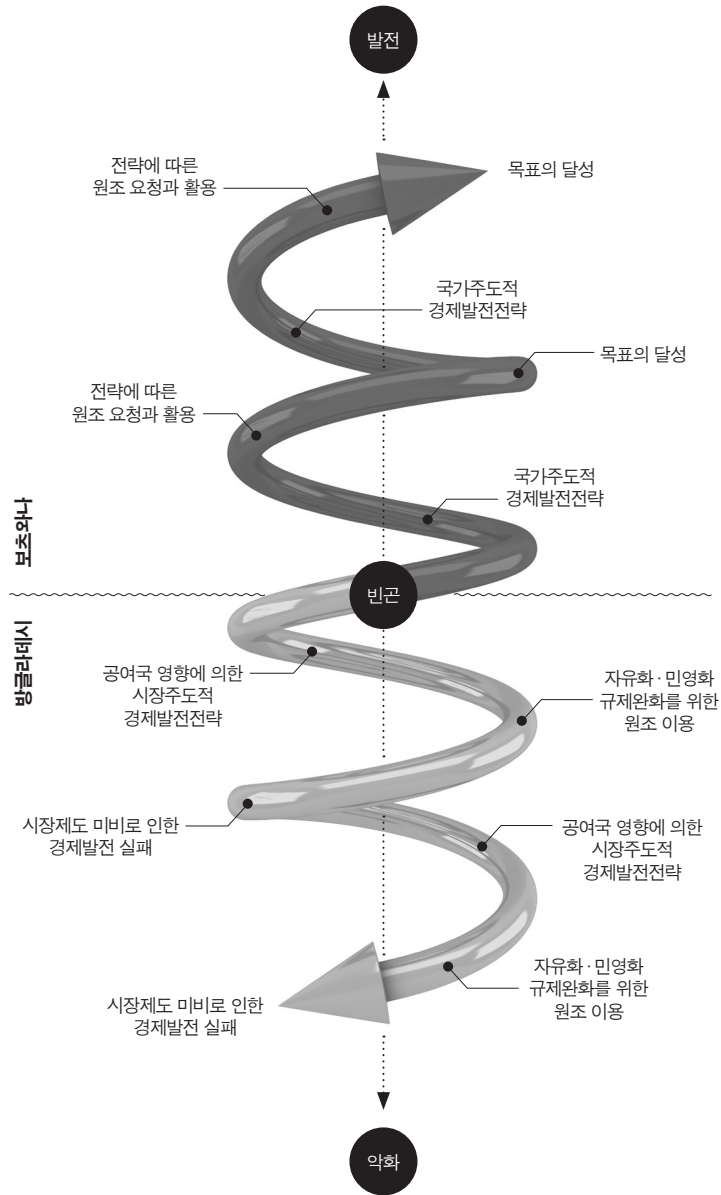
제7장 · 자유주제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원조의 효과성

— 국가주도형 대 시장주도형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Aid Effectiveness

한송이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국가주도형 대 시장주도형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찾기 위해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방글라데시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보츠와나의 원조이용과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두 국가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하여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츠와나는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택한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관리하였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1980·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장 자체나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양국의 원조의 이용 또한 달랐다. 보츠와나의 경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작성된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원조가 이용되어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조를 이용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정해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가 투자된 교육,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원조가 경제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에 따라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원조를 투자하였고, 이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

를 상승,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공여국의 강요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sought for the condition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o do that, I compar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use and the effectiveness of aid between Bangladesh and Botswana. Both Botswana and Bangladesh were so poor when they became independent. However, the GDP per capita of Botswana is almost 7,000 dollars now while Bangladesh's is barely 600 dollars.

Botswana has selected a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Bangladesh a market-oriented strategy. The Botswana government built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naged its economy according to this. It efficiently used aid accord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nors could give aid to Botswana in alignment with its priorities. Aid was invested in education, health, and transportation, which contributed to it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Bangladesh initiated reform policies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to have an open market economy un-

der the influence of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ts aid is us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its donors. Bangladesh invested aid to practice reform policies for a market-oriented economy,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aids could not help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and national debt.

As we compare the two, we can infer that building a marke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and practicing reform policy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onors do not render aid effective. It is rather more effective i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economy, and uses aid according to its strategy.

KEYWORDS 경제발전전략 development strategy, 개발원조 development aid, 원조 효과성 aid effectiveness, 보츠와나 Botswana, 방글라데시 Bangladesh

I 개발원조의 효과성

1. 개발원조의 중요성과 원조의 효과성

2000년 9월 국제연합이 개최한 새천년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역사의 획을 긋는 선언이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93). 전 세계의 빈곤감축을 위해 회의에 참가한 189개국 정상들을 필두로 한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으로 정해진 목표 달성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발원조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원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원조의 실질적인 금액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후반의 금융위기 직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DAC로 표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원조 금액은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약 12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원조효과성이란 개

1 개발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OECD/DAC의 정의에 따르면 (1) 한 국가의 정부나 그 집행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2)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3)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본 및 기술 이전을 개발원조로 지칭하며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발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실행하고, 원조로 투입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² 제공된 원조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수원국의 경제가 성장하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었는지를 수혜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원조를 받아온 만큼, 수원국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많은 원조가 지원되었음에도 아직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국이 받은 원조를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경제를 발전시킨 몇몇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원조의 효과성, 즉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고, 특히 공여국의 관점이 아닌 수원국의 관점에서 원조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원조효과성 연구

원조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우선 원조와 경제발전과의 관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원조보다도 거시경제 안정, 무역, 거버넌스, 물질·인적 자본, 제도, 법, 사회·문화적 요소, 기후, 지리적 여건 등이 경제발전에도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id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G8 Support Is Key for Progress," <http://www.oecd.org/dataoecd/1/40/45497644.pdf> (검색일 2011.11.2).

한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자본의 양은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이전된 자본의 양보다 적고,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조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분(Boone 1996, 289-329)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각국에 제공된 원조 액수와 GDP 성장률, 투자와 소비 증감 정도, 정치체제 형태 등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후에 개발원조와 한 나라의 경제성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반대로 원조가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하드지미카엘이나 두베리 등은 원조가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 수원 행태와 개발 정책,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원조가 증가할수록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Hansen 외 2000, 388). 더구나 원조는 단순한 자원의 이전뿐만 아니라 분석, 자문, 역량 구축 등의 조치가 병행됨으로써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경제를 위해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정책하에서만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번사이드(Burnside 외 2000, 847-868)와 달리는 낮은 인플레이션, 적은 재정 적자, 무역 개방, 강한 법 지배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장 등 시장주도적인 정책이 갖추어진 환경에서는 원조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90년대 개발원조 활동을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서방의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의 주체를 정부에서 개인,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작은 정부, 거시경제 안정화, 자유화, 민영화,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개혁을 시행할 것을 수원국에 요구하였다(강선주 2011, 196). 특히 대표적인 원조 제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혹은 세계은행(World Bank)은 수원국이 시장주도적인 경제개혁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부 원조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개발 패러다임이 실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어떤 연구는 이들과는 반대로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적인 이용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와다(Wada 외 2008, 1-14)와 토고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원조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가 주도하여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인적 자원 개발 등에 원조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국가의 서로 다른 전략이나 정책 하에서 원조가 어떻게 다르게 이용되며,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경제정책을 가진 국가들은 원조 역시 서로 다르게 사용할 것이며, 원조의 사용이 다르다면 같은 금액을 원조로 받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원조 그 자체로서는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그보다는 원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되느냐에 따라 원조의 성과와 원조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조효과성이 수원국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 수원국이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택했을 때 원조의 효과성이 높다' '2) 수원국이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택했을 때 원조효과성이 높다'는 두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사례를 선정하여 양국의 발전전략과 수원정책, 원조효과성에 대해서 비교해보려고 한다.

3.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정함에 있어 원조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국가별 수원금액 자료에 따르면 1960년 이후로 원조를 받은 국가들 중 그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국가는 약 160개⁴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원조효과성의 비교를 위해 효과성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 원조효과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경제발전이며, 가장 손쉽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연간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로는 보츠와나를 선정하였다. 보츠와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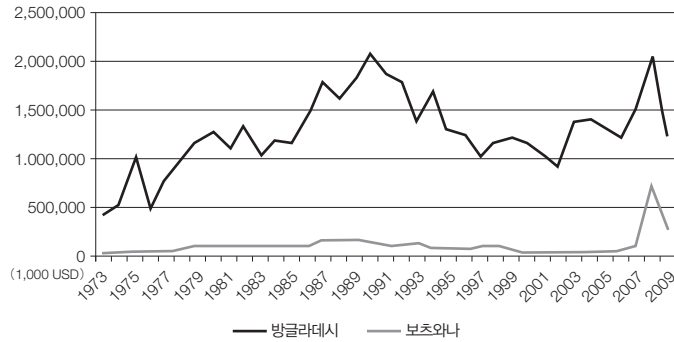
3 Banglapedia (National Encyclopedia of Bangladesh)-Aid Administration http://www.banglapedia.org/httpdocs/HT/A_0128.HTM (검색일 2011.11.20)
 4 World Bank Data,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countries> (검색일 2011.11.5)

1970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9.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1969년 보츠와나의 1인당 국가소득은 115달러였으나, 40여 년이 지난 2010년에는 7,403달러⁵에 달한다. 특히 사례 선정에 있어 고려한 것은 보츠와나가 국제개발협회 졸업국가(IDA Graduate)라는 점이다. 보츠와나는 국제개발협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들 중 하나였지만 경제가 발전하여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는다. 보츠와나와 같은 국제개발협회 졸업국가들은 원조를 받아 경제가 발전했다고 이미 인정받고 있는 바, 사례로 선정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츠와나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 약 39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경제발전이 더딘 국가로는 방글라데시를 선정하였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이후 최근인 2008년까지 세계 여러 국가 및 기관들로부터 받은 공적개발원조의 액수가 461억 달러로 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⁶ 1인당 국가소득은 1969년 129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673달러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 역시 3.77%로 수원금액에 비해 그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또한 국민들의 반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로서 질병, 기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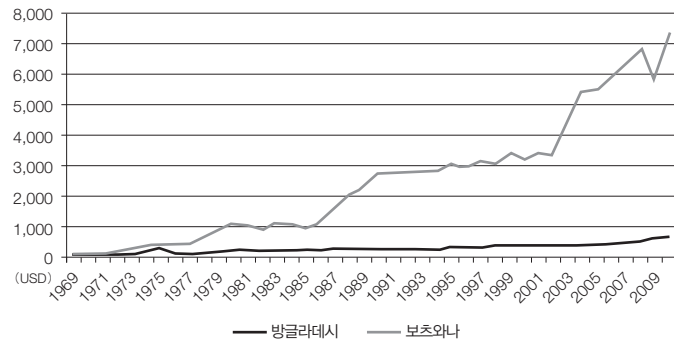
보츠와나는 총 수원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현재 소득은 매우 높다. 방글라데시는 총 수원금액은 많지만 현재 소득이 그리 높지는 않다. 단순히 이 두 가지 사실만 비교해본

5 World Bank Data, GDP per Capita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검색일 2011.11.5)
 6 World Bank Data,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countries> (검색일 2011.11.5)



출처: World Bank Data,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⁷ 참고하여 정리.

그림 1. 1973-2009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연간 개발원조 총액 비교



출처: World Bank Data, GDP per Capita (current US\$)⁸ 참고하여 정리.

그림 2. 1969-2010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연간 1인당 국가총소득 변화 비교

다면 보츠와나는 원조의 효과성이 높고, 방글라데시는 원조의 효과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두 국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양국의 개발정책과 원조 수용 정책 및 활용 정책 등을 비교하여 연구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보츠와나의 경제발전과 원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건전한 경제정책과 지하자원 그리고 적절한 정부의 역할을 경제발전의 성공요인으로 주로 언급하고 있다(Harvey 외 1990, xii).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성공에 원조 역시 일조하였으며, 특히 원조가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연구들이 있다(Maipose 외 1997, 16-35).

방글라데시는 아직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만큼, 경제발전요인이나 경제발전에 미친 원조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편이다. 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주도로 실시된 구조조정과 정책개혁에 대한 평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의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은 만큼 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제가 발전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원조에 대한 연구 역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과 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이익을 얻었을 뿐 대다수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Aghevli 외 1988, 45; Mahmud 2000, 53-54).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한다. 첫째는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계획이다. 양국은 약 5~6년을 주기로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당시의 경

7 World Bank Data,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Y.ODA.ALLD.CD/countries> (검색일 2011.11.5)

8 World Bank Data, GDP per Capita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검색일 2011.11.5)

제 상황 전반과 주요 경제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계획을 평가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의 경제 상황과 개발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원조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원조전담 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공여 기관은 제공된 원조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이러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각국에 원조가 얼마나 제공되었으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경제 상황 및 경제발전전략

1.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의 경제 상황

1) 보츠와나 경제 개괄

여기서는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 양국 경제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보츠와나는 80여 년간 영국의 보호령(protectorate)이다가, 1966년 9월 30일 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하였다. 독립 당시 보츠와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기아가 만연한 상태였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the World Food Program)의 식량 원조를 받아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상지출을 모두 영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1968, 1-5).

그러나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첫째, 드비어스(De Beers)사가 오라파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망와토유한책임회사(Bamangwato Concessions Ltd.)는 셀레비피크웨에서 구리와 니켈을 채굴하기 시작한다. 또한 1970년부터 보츠와나의 주요 수출품인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에 쇠고기 수출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되었고 농촌의 수익 역시 증가하였다(Dahl 1981, 6). 그리고 다양화된 공여국들로부터 받는 원조 역시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작된 보츠와나의 성장세는 그 후 계속 이어진다. 이로 인해 보츠와나는 경상지출에 있어 영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경상지출예산의 자가 충족이 이루어짐으로써,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는 보츠와나 정부의 재정 운영 및 계획 설립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에도 보츠와나의 성장 동력은 지속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고 개발된다. 또한 정부로 들어오는 세수 역시 광산 건설로 인해 늘어난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출로 인한 직접세 등을 통해 늘어난다. 공업이 성장하면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전통적인 분야의 수출 역시 성장하게 된다(Harvey 외 1990, 30). 이에 따라 보츠와나의 국가소득은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1966년 독립 당시 보츠와나의 1인당 국가소득은 84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꾸준히 성장하여 1980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7,400달러에 달한다.

2) 방글라데시 경제 개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다. 1인당 국가총소득은 623달러이며,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58세에 불과하다.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어린이들 중 약 6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의 53% 정도가 문맹이다. 그 결과 인구의 반 이상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Planning Commission 1998, 3).

방글라데시는 1971년 12월 16일 독립하였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 동부 지역이었으며, 서부 파키스탄의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다(Sobhan 1981, 328). 전쟁을 통해 독립은 이뤘지만 그 상흔은 엄청난 것이었다. 국제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의 손해액은 약 10억에서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교통, 통신, 발전, 항구, 도로 시설 등이 모두 폐허가 된 상태였다(Planning Commission 1973, 1).

방글라데시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독립국가의 첫발을 내딛는다. 주요 산업시설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서 규정짓고, 국영화를 진행하였다(Planning Commission 1978, 1). 1975년의 쿠데타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시장주도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부는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경제 구조를 조금 더 개방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의 주도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당시 방글라데시는 경상수지적자, 재정적자,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거시경제적인 안정화 정책이 필

요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차관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곧 차관은 그 액수와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여기관은 오랫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무역장벽, 산업보조금지급, 공기업 운영 등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왜곡했으며, 이를 해결해야만 경제가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역보호 정책 철폐, 농산품 시장 자유화, 보조금 감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 반적인 경제운영에 대한 더욱 본질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으로 변화하였다. 그 내용은 조세수입의 관리, 적자 감소 운영 등 재정개혁과 금융 및 사회분야의 제도개혁을 포함하고 있었다(World Bank 2001, 43). 그러나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도 방글라데시의 국가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2. 경제발전전략의 성향

1) 보츠와나: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다음 부분에서는 양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했다고 평가된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워싱턴컨센서스에 따라 시장주도적 경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개혁조치들을 취한다. 각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보츠와나의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이

를 실행하였으며, 민간 영역의 발전을 촉진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투자자의 역할을 하며 경제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츠와나 정부가 경제개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츠와나가 식민지 시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들의 관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Maipose 2008, 5).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보츠와나를 “내생적 발전국가(indigenous developmental st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츠와나는 전통적으로 지도자가 부를 축적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이는 독립 이후에도 이어져 정부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보츠와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연속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다. 국가개발계획에서는 그 전에 시행된 개발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 기간 동안의 발전전략과 투자분야를 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전 및 투자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이 실제로도 경제운동을 합리화하고 개발목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개발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었고, 계획 담당 부처에 속한 능력 있고 강력한 고위공무원에 의한 계획과 예산, 경제정책 형성과정 등이 밀접하게 통합되었으며, 계획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예산과 경제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발히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Rahphaeli 외 1984, 2).

또한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투자를 하였다. 특히 보츠와나의 경우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자했다고 평가된다. 1970년부터 1994년 사이 정부로 들어오는 조세수입은 엄청난 것이었고, 정부의 지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광산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많았다. 다양해진 공여국들에게서 들어오는 원조 역시 상당했다. 정부는 이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교육 및 보건 분야 등에 투자하였다. 1년에 국가소득의 40% 정도를 인프라 구축과 인적 자원 육성에 투자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지국가라고 평가되는 노르웨이와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Maipose 2008, 8-14).

정부는 민간영역이 활발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보츠와나 정부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그 중 한 가지가 보츠와나개발기업(Botswana Development Corporation)을 설립한 것이다. 보츠와나 개발기업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으로 민간 기업에 대출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다변화와 민간영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Maipose 2008, 30). 즉 보츠와나 정부는 민간영역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보츠와나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실

제로 이를 이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대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민간 영역의 육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리고 보츠와나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어쩌면 헛되게 낭비되었을 수도 있는 막대한 해외 원조와 광산 수익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게 하여, 보츠와나가 저개발국에서 고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방글라데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

앞서 언급했듯 1970년 독립 당시 방글라데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라의 기반시설과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국영화하였다. 이 시기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개발을 위한 지출 역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1973년부터 1978년에 걸친 1차 5개년계획 당시 이루어진 총 개발지출 중 공적 지출이 약 88.7%를 차지했다(Planning Commission 1973, 1-2). 그러나 1975년부터 거시경제정책의 개혁이 시작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 원조공여기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72년부터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세계은행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원조공여국회의(Aid Consortium) 등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혁의 기본적 전제는 경제운영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대신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obhan 2002[a], 2).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공여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영화, 자유화,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향한 정책개혁이 가속화되었다.

개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70년대 중반에는 민간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제한되고 통제되었던 민간영역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고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된다(Planning Commission 1978, 18). 민간영역의 투자 증대뿐 아니라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1982년에 발표된 신공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소유한 섬유 생산시설 등 대부분의 공업 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이었다(Planning Commission 1990, 1-12). ‘1991 공업정책(Industrial Policy of 1991)’의 기본 목표는 방글라데시 경제를 세계시장에 통합시키고 민간영역이 기업친화적인 환경에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수입자유화와 수입 절차 간소화, 수입관세의 합리화 및 인하, 환율통제 자유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사실상 해외 민간금융의 이동에 대한 모든 규제가 철폐되었다(Planning Commission 1997, 68). 또한 민간영역의 투자를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 분야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까지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을 지배하였으며 민간금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금융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개혁이 필요했다. 따라서 민간 상업은행 설립 허용과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하여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개혁이 이루어진 결과, 방글라데시는 상당 부분 자유화된 수입체제, 확연히 감소한 공적영역, 농업 분야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보조금 지급, 15년동안 국유사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던 공업

분야 등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갖게 되었다(Sobhan 2002a, 2).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고 민간 영역이 늘어났으며, 규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래 개혁의도대로 시장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다. 예를 들어 민영화 정책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개혁(Structural Adjustment Reform)을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어떤 산업 분야가 민영화되고 어떤 산업 분야가 정부의 영역으로 남을지 명확한 정책이 없었다. 또한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된 민영화가 약간의 이윤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기업 폐쇄, 실업, 은행의 채무 부담 증대, 조세수입 감소 등이었다. 민영화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불균형 감소 역시 기대하기 어려웠다(Sobhan 2002b, 9).

그리고 시장주도적인 자유화를 위한 개혁은 행정이나 법의 제도개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적절한 규제나 통제 조치 없이 이루어진 지나친 금융 자유화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자율에 대한 규제 철폐는 은행대출의 이자율을 지나치게 상승시켰고,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Mahmud 2000, 57-59). 1997년에는 주가폭락으로 인한 금융위기마저 겪게 되었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가 내리는 결정은 세계은행이나 그 외 공여기관이 제공한 특정 차관의 정책조건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일 뿐이었다(Sobhan 2002b, 17).

3. 국가개발계획 설립 및 집행기관

1) 보츠와나: 재정 및 개발계획부

보츠와나의 경제개발에 있어 개발국가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요소는 보츠와나의 경제개발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인 재정 및 개발계획부(MFDP: the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의 존재라 할 수 있다. 1965년 당시 영국 보호령으로서 강력한 행정부를 갖추지 못한 보츠와나는 1966년 9월 독립과 함께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게 된다. 신생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강화가 필요했다. 이는 국가개발계획을 설립하고 이행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부서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MFDP를 설립하게 된다(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1968, 68).

이후 MFDP는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의 실행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 예산 절차를 관리함으로써 실제로 개발지출과 경상지출이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책임도 맡고 있다. 이렇게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개발지출과 경상지출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보츠와나의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요소로 평가된다(Maipose 외, 1996, 3).

MFDP가 경제, 재정·예산, 개발계획의 책임을 모두 맡고 있는 만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으로 강력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MFDP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가

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 부서의 직원들이나 임원들은 모두 놀랄 만큼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치가나 다른 공무원들은 이 부서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MFDP가 강한 권력을 소유하여 부서 간의 이해관계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개발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원칙 등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Maipose 2008, 35).

2) 방글라데시: 계획위원회

방글라데시의 연간개발계획, 5개년개발계획을 준비하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일은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가 주로 담당한다. 계획위원회는 1972년 설립되었다.

계획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자문과 실행 그리고 협력이다. 위원회는 개발목표, 우선순위, 전략 및 정책에 대해 정부에 조언한다. 또한 실행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는데, 투자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책임 역시 위원회에 있다. 개발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부서 간 협력 역시 관리하고 있다.⁹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의 개발계획 및 집행 시스템이 다른 점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는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 그리고 원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역할은 계획과(Planning Division)가, 해외원조는 경제관계과(ERD: External Resources Division)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세우고 감독하는 것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있어 모두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경제관계과에 협력을 요청한다. 보츠와나처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경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들이 분리되어 기능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보츠와나보다 효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III 원조 수용 및 활용 정책

1. 양국의 수원 상황

1) 보츠와나: 원조공여국 다양화와 해외의존도 축소

양국은 주로 어떤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에서 어느 정도 원조를 받았을까? 독립 직후 약 5년 간 보츠와나에 제공된 원조의 57%는 영국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보츠와나 정부는 경상지출의 100%를 영국 원조로 충당하였으며 개발지출 역시 영국의 원조를 받았다. 영국은 주로 농업이나 교육 분야의 개발가치가 인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원조를 많이 제공한 곳은 세계은행으로, 특히 1964년 도로 건설을 위해 36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는 세계식량계획으로서 정부는

9 Banglapedia (National Encyclopedia of Bangladesh)-Planning Commission http://www.banglapedia.org/httpdocs/HT/P_0189.HTM (검색일 2011. 11.20)

기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급하기 위해 옥수수, 식용유, 건과 등을 제공받았다(Stevens 1981, 160).

이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순위 중 한 가지는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고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특히 보츠와나 정부는 영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원조공여국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1971년에는 스웨덴이 제공하는 정기 원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스웨덴의 원조는 1968/69년 5만 풀라(Pula)였으나 10년 만인 1977/78년에는 무려 180배가 증가하여 900만 풀라가 된다. 그 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이어 원조공여국의 범위는 아랍국가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대되었다(Stevens 1981, 162-165). 국가뿐만 아니라 다자기관에서도 원조를 받게 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1972년 원거리통신기술 프로젝트 원조를 시작으로 이후 도로 건설, 보건 분야, 공항 건설 등에 원조를 지원한다. 그러나 다자기관보다는 한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총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공여국들이 보츠와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함에 따라 원조 총액은 점차 감소하였고, 국민총소득 중 개발원조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또한 정부 개발 지출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6차 국가개발계획 당시 총 개발프로그램 지출 중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8%였다. 그러나 7차 국가개발계획에서 이 수치는 12%로 하락했으며, 8차 계획 기간 동안에는 5.5%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중이 줄었어도 여전히 원조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보츠와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HIV/AIDS를 포함한 보건, 수자원, 교육, 도로, 자연보호 등의 주요 개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원조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츠와나가 고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국내 자본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2003, 79).

2) 방글라데시: 여전히 높은 원조의존도

방글라데시는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전쟁 직후 신생독립국가인 방글라데시가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조가 절실했다. 특히 식량원조와 재난구호 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국가의 개발 필요에 따라서 원조 액수는 서서히 증가하였고 공여국 역시 다양화되었다. 절대적인 액수를 보면 독립 이후인 1971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방글라데시에 제공된 원조는 473억 달러에 달한다. 앞서 보츠와나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방글라데시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기구는 세계은행이다.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은행이 방글라데시에 제공한 원조의 이행 액수는 약 1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미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세계은행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만큼 방글라데시에 대한 세계은행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방글라데시에 제공된 원조 액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 동안 원조 액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츠와나와 마찬가지로 원조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8년에는 그 비중이 2%대까지 하락했다. 또한 식량원조와 상품원조의 비중이 줄어들고 프로젝트 원조가 늘어난 것은 구호 목적이 아닌 개발 목적의 원조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역시 국가의 경제가 점점 건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간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lan)에서 차지하는 원조 비중도 1991년에는 87%였으나 2003/04년에는 42%까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원조의존성은 여전히 높다. 전체적인 원조의존성은 감소하였을지도 모르지만, 특히 원조의존성이 높은 몇몇 분야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보건 및 복지 분야는 74%, 행정 분야는 73%의 원조의존성을 보이고 있다(Mahmud 2009, 18-19). 이렇게 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심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글라데시는 국가개발계획을 세울 때마다 의존성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지만 실제로 큰 성과가 없는 것이다.

2. 수원 시스템

1) 보츠와나: 국가발전 우선순위를 고려한 원조 수용

보츠와나의 원조 요청 및 수원 절차는 중앙집권적이다. 공여국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조건을 논의하며, 또한 그 이행 성과를 감독하는 것은 모두 MFDP의 책임이다. 특히 원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MFDP는 다양한 공여국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그들의 선호도

를 파악하고 그들이 그에 일치하는 분야나 혹은 개별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 하나만의 프로젝트를 배당하여 여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3-4가지 프로젝트 중 공여국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보츠와나의 국가개발계획 역시 원조 요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은 국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된 것이므로, 공여국들에게 제시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보츠와나가 독립 당시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공여국이 이를 통해 원조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있었다(Maipose 1997, 24). 또한 국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국가의 우선순위는 곧 원조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계획 내의 국가 정책은 공여국들도 따라줄 것이 요구되었다. 원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비용 등은 모두 국가 예산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정식 예산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계획에 포함되어 원조가 결정된 프로젝트들은 그 중요성이 이미 인식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공여국이 지원을 마치고 철수했다고 해서 관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츠와나 정부가 프로젝트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국의 개발을 위해 원조를 필요로 하고 원조를 요청하는 보츠와나지만, 원조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혹은 공여국의 입장에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니다. 보츠와나 정부는 원조 수용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보츠와나는 상환의 부담이 있는 유상원조, 즉 차관을 제공받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했으며, 설사 차관을 받는다고 해도 상환조건이 까다롭다

면 이를 거절했다. 프로젝트 물품의 조달의 구입처가 정해져 있는 구속성 원조는 무상원조 시에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차관을 도입할 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 둘째, 공여국과의 협상은 1대1로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수원국에서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들 사이의 회담을 통해 한 분야에만 원조가 중복되지 않고 수원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제공되지 않는 분야가 없도록, 그리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여국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그러나 보츠와나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정부의 개발계획의 일부로서 공여국들 간에 원조 제공 분야가 중복되지 않고 각 공여국에 적합하도록 이미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Stevens 1981, 166).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는 엄밀히 말해 돈을 주고받는 '갑과 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수원국에게 있어 공여국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츠와나의 경우 국가주도적으로 수원 절차를 관리하면서 국가개발 우선순위와 목표를 먼저 고려하고 그와 일치하지 않은 공여국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츠와나는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공여국 정부, 기업, 기관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이익을 얻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실행했다. 그럼으로써 보츠와나는 공여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발전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다. 많은 개도국에서 공여국들은 수원국에게 수원국의 개발 필요성과는 맞지 않는 그들 자신의 선호도나 우선순위를 강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수원국은 이러한 공여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다. 반면, 보츠와나는 자신들의 경제발전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를 존중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따라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또한 발전을 이루어냈기에 공여국들도 이를 인정하고 보츠와나의 우선순위에 적합하도록 원조를 제공하였다(Rahphaeli 1984, 5).

2) 방글라데시: 공여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방글라데시는 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이는 곧 공여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독립 직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방글라데시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이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해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정책대신 손쉽게 재정적자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택했다. 정부 경상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공적 분야에 있어서의 소비 및 생산 보조금의 지급 또한 정부저축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해서, 식량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 외화보유고와 소비량의 차이,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가 커져만 갔고, 이는 해외원조를 통해 충당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원조에 대한 의존성은 더해갔다(Sobhan 1981, 342). 그리고 국민들은 원조를 제공받은 수준에 따라 행정부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였다(Kochanek 2004, 127).

이를 반영하듯 방글라데시의 수원 시스템은 공여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츠와나는 공여국과 1대 다수의

입장에서 마주 대하는 것을 피하는 반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기적으로 공여국들과 1대 다수의 회담을 갖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공여국회의(Aid Consortium)이다. 여기에서는 공여국들 간 원조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여국들 간의 정책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공여국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우선순위와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자신들이 제공할 원조의 종류와 액수 등을 약속한다. 만약 수원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원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혹은 기존에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원조를 취소할 수도 있다(Rahman 2008).

개발 지출 예산의 대부분을 원조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만약 원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개발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원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원조가 약속된 프로그램을 국가가 진행할 개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고, 공여국들의 공약에 따라 개발지출 예산안을 짜게 된다. 개발 프로젝트를 미리 선정해놓고 공여국들이 그 중 지원할 사업을 고르게 하는 보츠와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전관계가 원조의 협상 절차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Planning Commission 1978, 20). 그러나 한 나라의 예산안을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수립한다는 것은 지나친 원조 의존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공여국들이나 공여기관 사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각자에게는 나름의 능력과 선호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여국들도 각자의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수원국의 국익이 희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Planning Commission 1997, 70).

많은 공여국들 중에서도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함께 원조공여국회의의 공동개최를 맡고 있으며, 1972년부터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기관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한 만큼, 방글라데시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계은행이 방글라데시 경제를 개혁하는 데 사용된 주요 기제가 구조조정차관(Adjustment Lending)이다. 처음 구조조정차관이 방글라데시에 제공된 이유는 1979년 오일쇼크 후 악화된 정부의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경제 전반적인 구조의 조정을 위한 것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세계은행이 작성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개혁 목표를 보면,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민간 영역의 활성화, 민간 영역 성장을 위한 정부 운영, 인적 자원 육성 및 사회개발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orld Bank 1995, 6-17). 그리고 세계은행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정부 혹은 지역사무소 등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의 공적지출 보고서, 연간 경제성장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전문가 회의, 경제 분야별 연구 등을 진행하여 방글라데시 구조조정에 관여하였다.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들도 비슷한 형태로 방글라데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3. 원조의 지출 구성

1) 보츠와나: 인적 자원개발에 지출

보츠와나의 경우, 1973년에 영국의 원조를 경상지출로 이용하는 것이 끝나면서 해외로부터 받은 원조를 모두 개발지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츠와나는 국가 개발의 우선순위에 맞는 개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여국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국가의 필요와 일치하는 분야에 원조를 사용하였다. 주로 광산 주변의 도로, 발전시설, 수자원 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는 데 이용이 되었다.

특히 보츠와나가 원조를 주로 이용한 분야는 인적 자원개발 분야이다. 보츠와나는 예전부터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했으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육성이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교육 분야에 많은 원조를 투입하였다. 원조는 특히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혹은 전문가 파견 등의 형태로 보츠와나의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80년대 중반 수천 명의 해외 전문가가 보츠와나에서 일하였는데 그들 대다수가 원조를 이용하여 고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에도 원조가 많이 사용되었다(Maipose 1996, 42).

보츠와나 개발 지출을 나타낸 <표 1>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교육 분야에 10%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부터 73년까지의 기간에는 교육에 투자한 개발 지출의 비중은 전체 중 3.4%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표 1. 1968-2003 보츠와나 개발지출의 부서별 구성 변화

분야	1968-73 비율(%)	1985-89 비율(%)	1997/98-2002/03 비율(%)
의회		0.1	0.5
경찰	0.4	15.7	13.3
재정 및 개발계획	54.1	10.9	5.0
농업	3.8	10.7	3.3
산업		0.7	1.6
광물 및 수자원	7.1	9.0	14.6
교육	3.4	10.7	10.8
보건		4.0	7.3
노동	1.6	1.2	2.4
지방정부	3.0	17.0	25.7
교통·통신	26.5	18.9	14.4
사법		0.1	0.6
외무		1.0	0.5
총계	100	100	100

출처: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Plan 3, 7, 9 - Government Development Expenditure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1973, 31;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1991, 103;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2003, 77) 참조하여 정리

나 실제로 그 시기 역시 교육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졌 있었으며, 특히中等교육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 커리큘럼과 교사법의 표준 확립에 힘썼다(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ning 1973, 35).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식자율은 93/4년 68%에서 2003/4년 81.2%까지 향상되었고, 초등학교 등록률 역시 꾸준히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츠와나는 생산 활동은 주로 민간영역의 분야로 남겨놓고 정부가 원조를 이용할 때에는 주로 물적·인적 자원 육성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원조를 이용하여 생산된 자원은 오늘날 보츠와나가 성장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고 있다. 보츠와나는 원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보다는 원조를 받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조의 사용처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2) 방글라데시: 장기적 비전도 성과도 없는 원조지출

〈표 2〉는 방글라데시에 제공된 산업별 프로젝트원조의 이행액수 및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농업과 공업, 발전 및 천연자원, 교통 등의 분야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출은 항상 전체 지출 중 20% 정도를 차지하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 제도정비, 곡물생산 증대, 관개시설 설비, 홍수 조절 등의 사업이 속한다. 이렇게 농업에 많은 지출을 하는 이유는 방글라데시가 농업국가로서 국가의 수입이 주로 이 분야의 생산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대 초반기까지 각종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한다. 에너지 분야 외에 공업 분야, 금융 분야 역시 구조조정차관을 받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2차 공업 분야 구조조정차관(Second Industrial Sector Adjustment Credit)은 수입을 자유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민간영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실제로 최고관

표 2. 1976-2005 방글라데시 프로젝트원조 이행의 산업별 구성 변화

분야	1976/77-85/86 비율	1986/87-95/96 비율	1995/96-05/06 비율
농업 및 수자원	21.87	23.41	16.43
산업	14.58	7.84	2.02
전력 및 천연자원	25.93	25.23	16.04
교통	14.58	16.72	17.83
통신	2.28	2.16	3.47
주거	2.32	4.68	10.99
교육 및 종교	3.19	6.49	10.76
노동	0.12	0.10	0.02
행정	0.17	1.09	10.6
사회개발	0.50	0.07	0.16
보건	2.52	2.50	8.59
인구계획	3.53	5.80	1.85
기타	8.41	3.91	1.24
총계	100	100	100

출처: Bangladesh Economic Relation Division, Disbursement of Project Aid by Sector-Yearwise (1971/72-2009/2010)¹⁰

세율을 400%에서 50%까지 낮추고, 발전 및 통신 분야에 민간영역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조직적인 관료제,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성과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금융 분야 구조조정차관(Financial Sector Adjustment Credit)은 방글라데시의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해 실행

10 Bangladesh Economic Relation Division, Disbursement of Project Aid by Sector-Yearwise (1971/72-2009/2010), <http://www.erd.gov.bd/images/FlowBook/0910/tbl-3.7.pdf> (검색일 2011.11.17)

되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던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정책금융(directed credit)을 사실상 철폐하고, 국유화된 상업은행들(nationalized commercial banks)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자율 자유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방글라데시의 금융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부의 개혁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원조의 지출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보츠와나와 달리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사용된 액수가 적다는 데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교육과 종교 부분에 투자된 원조 액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는 3.19%,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는 6.51%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10%이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기는 하지만 보츠와나에 비해서는 적은 비중이다. 그 외에도 노동 및 인력 부분과 사회적 개발,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원조의 지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 육성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원조 지출 구성이 방글라데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IV 개발전략, 수원정책과 원조효과성

1. 국가주도적인 보츠와나

여태까지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의 개발전략과 수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국의 개발전략과 수원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관리해왔다. 정부가 경제발전전략을 세워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정하고, 스스로 투자자가 되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국가개발계획은 보츠와나 정부가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보츠와나 경제발전을 위해 세운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부서 간의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경제개발계획의 설립을 맡은 MFDP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율적인 보츠와나 정부는 보츠와나의 국익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었다.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보츠와나 내에서 그들이 갖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보츠와나 인들이 경영권 등을 가질 수 있게 장려하기도 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부는 역시 원조를 요청하고 받아서 이용할 때에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용해야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츠와나는 여러 노력들을 통해 공여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발전 초기 전체 개발지출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원조의존성이 클 때에도 정부

는 공여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원조를 요청하고 수용하고 이용하였다. 원조공여국을 다양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한 나라에서 받는 원조가 전체 원조의 1/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채무상환의 부담이 있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하였으며, 유상원조를 받을 때에도 상환 기간이나 양허율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업을 시행할 때 공여국 혹은 공여국이 정한 국가에서만 물품의 조달이 가능한 구속성 원조는 잘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통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지나치지 않도록 유지해왔다.

이러한 수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츠와나 정부는 원조의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여국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원조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에 이용된 것이 국가개발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국가개발계획은 곧 원조의 요청 및 활용 계획이기도 했다. 공여국은 보츠와나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보츠와나의 발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분야와 사업에 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츠와나 정부는 공여국과의 1대1의 협상을 통해 원조를 요청하였다. 각 공여국의 선호도를 고려하되, 여러 공여국의 원조제공 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원조를 제공할 사업이나 분야를 권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 공여국과 보츠와나 정부의 뜻이 어긋날 경우 보츠와나 정부는 원조를 거절하거나, 혹은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원조의 활용 역시 국가개발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원조 프로젝트의 완결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자국의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행이 가능한 사업에만 원조를 투입하였던 것이다. 물론 원조라는 것이 자원과 자본을 공여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잘 완결되어 원래 목적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만약 처음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수원국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각종 자재나 물품의 조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도중에 중단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국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또 존재한다. 실제로 원조를 할 때 수원국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최첨단의 의료장비나 기계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공된 설비는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못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국가개발계획에서 이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

원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사업이 완결되고 공여국의 사업팀이 철수한 뒤에도 그 성과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공여국의 원조가 끝난 뒤에도 그 혜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지비용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역시 원조가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이용되기 때문이다. 원조를 받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국가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미리 계획되었기에 원조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이후의 유지비용도 국가개발계획의 일부로 미리 계획이 될 수 있

었던 것이다. 각종 원조프로젝트로 거둔 성과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경상예산의 일부로 편성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보츠와나의 경제발전은 다이아몬드나 구리, 니켈 등의 지하자원에서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보츠와나에 제공된 원조 역시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보츠와나 정부는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도로나 공항 등의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교육 보건 등의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분야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때 제공된 원조는 광산 주변의 도로 건설이나 수자원 이용시설 건설 등 광산도시에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광산도시 주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주요 도로나 공항 등은 대부분 원조로 받은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되었다.

물적 자원뿐만이 아니다. 독립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던 보츠와나는 특히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보편적인 초등교육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한 투자도 하였다. 대학을 세우고, 대학 안에 박사 과정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적 자원이 개발될 수 있었다. 실제로 보츠와나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1995년에는 96.75, 2004년에는 98.5%까지 증가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수도 1995년 10,792명에서 2004년 12,717명으로 증가하였다(UN System in Botswana 2007, 12). 이렇게 육성된 물적·인적 자원은 모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발전시킨 보츠와나는 원조 역시 그 일부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요

소인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많은 원조를 투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국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완결성과 지속성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원조를 이용한 사업들은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실제로 도로나 공항 등 국가의 기간 산업시설이 건설되고 인제가 육성되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 시장주도적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독립 직후에는 사회주의 정책을 택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국가 산업시설의 대부분을 국유화하였으며, 경제에 대한 통제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장주도적인 개방경제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정책개혁에는 세계은행과 같은 원조공여국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정책개혁을 요구하였고 방글라데시는 이에 따라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의 성격을 지닌 개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공여국의 영향력 속에서 세운 시장주도의 경제발전정책은 방글라데시에 알맞은 것이 아니었다. 방글라데시가 채택한 경제발전정책은 방글라데시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세계은행의 해결책에 의한 것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여러 수원국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된 개혁정책은 이론상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원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수원국의 상황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실행도 어려웠다. 방글라데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글라데시의 경제상황은 시장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실행

할 만큼 시장이 발달하거나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미숙한 상태였다. 정부의 제도도 미비하였으며, 법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시민의식도 부족했으며,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의 책임의식도 성숙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에 의지하는 발전정책이 채택되었다. 민간영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민영화, 점진적인 자유 정책 시행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자유화, 규제 재설계가 아니라 규제 철폐를 시행해야만 했다(Quiberia 2008, 31-32). 민간 투자를 늘리고, 민간 금융기관의 설립을 자유화했다. 해외투자의 한도를 철폐하고 해외로부터의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장이 최대한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혁을 시행했지만, 실제로 시장은 경제교과서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기능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우선 시장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비료를 필요로 했지만 공기업이 모두 철수하고 남은 민간 비료공장에는 지난 15년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를 따라갈 만큼의 공급 능력이 없었다(Sobhan 2002a, 10-12). 또한 금융 개혁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분야에 적합한 감독 조치를 설치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더 강조한 결과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Bhattacharya 외 2003, 22).

원조를 요청하고 수용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역시 방글라데시 정부보다는 공여국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은 공여국회의 혹은 정책대화 등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방

글라데시 정부가 공여국과 마주하여 원조를 요청하고 공여국이 향후 1년 혹은 다년간 제공할 원조를 약속하는 공여국회의는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제공하는 여러 공여국들이 모여 서로 간의 원조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방글라데시 정부보다는 공여국을 위한 곳이다. 이 공여국회의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1대 다수의 입장에서 공여국을 마주해야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리 개발계획을 세우고 개발사업을 정하여 원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공여국이 원조를 하겠다고 한 사업을 개발 사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것이 수원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공여국은 공여국 나름의 국익을 고려하며, 때로는 이것이 방글라데시의 국익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보다 방글라데시의 국익을 우선 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원조를 받는 불리한 입장에서 그러한 공여국의 요구나 조건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고려사항 없이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어디인지,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다른 경제 주체들보다 더욱 잘 파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중앙집중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정의상으로 국가는 전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다(장하준 2006, 83). 그렇기 때문에 국가개발전략을 세우고,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조를 받고 이용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가 개발정책과 더불어 원조 수용에 있어서도 국가보다는 공여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실제 방글라데시의 필요와 일치하는 분야에 원조가 투자되지 못했다.

국가보다는 공여국이 원조의 활용에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실제로 원조를 받아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공여국이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지를 결정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 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은 실행 도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거나, 물품이 부족할 수도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문화나 관습 등과 어긋나 실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이행률이 낮은 것은 수원국 역량의 부족이나 제도의 미비, 문화나 관습의 차이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조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는 수원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부분의 원조프로젝트는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과 경제정책개혁을 실행해야만 했다. 그렇게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곧 원조의 조건이자 내용이며, 또한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직접 그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필요로 할 때 시작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더구나 세계은행과 여타 공여국들이 진행한 구조조정은 방글라데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광

범위한 정책의 개혁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개혁에 대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개혁에 맞춰 의식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시행된 정책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원조를 지출할 사업 역시 공여국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다보니 정작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기도 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육성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 원조가 많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시장중심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민간영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 많은 자금이 사용되었다. 세계은행이 제공한 구조조정차관은 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은행들이나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그들의 대출을 변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마직섬유 분야(jute sector) 구조조정 시 방글라데시 정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든 민간 섬유공장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 마직섬유 공단(Bangladesh Jute Corporation)이 민간은행들에게 진 부채는 정부가 변제하였으나, 국유화된 상업은행들에 대한 부채는 변제하지 않았다(World Bank 1998, 20). 문제는 이렇게 실시된 구조조정이 실제로 경제개발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수원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된 구조조정 및 개혁은 제도 및 역량의 미비, 사람들의 이행 의지 부족, 정부와 공여국과의 의견 불일치 등

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보츠와나가 받은 원조는 본격적인 경제 개발 전에 제공되어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물적자원과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육성된 자원은 국가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으나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원조를 활용하는 데도 모두 공여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의 우선순위는 걸맞지 않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원조가 이용되면서 원조의 효과가 낮았다.

V 개발전략의 차이와 원조효과성의 차이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했다. 빈곤과 기아,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두 국가는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국가의 시작은 비슷했을지도 모르지만 40여 년이 흐른 지금 두 국가의 현재는 매우 다르다. 보츠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양국의 개발전략을 비교해보면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택했다.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직접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였다.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는 등의 일은 보츠와나의 부총리가 수장인 재정 및 개발계

획부(MFDP)의 책임이었다. 경제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 즉 개발계획의 수립, 예산의 작성 등을 모두 MFDP가 통제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시장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택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영향으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제대로 방글라데시에 자리 잡지 못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시장주도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시장 자체라든지, 시장을 잘 작동할 수 있게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의 개발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략 하에서 원조의 이용 역시 달랐다.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라 원조도 이용되었다. 특히 원조의 이용은 국가개발계획의 일부로서 통합되었다. 공여국은 국가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원조 분야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보츠와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원조의 완결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만약 보츠와나의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지 않거나 보츠와나의 원조 수용 원칙에 어긋난다면 보츠와나는 원조를 거절하거나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원조를 수용하였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원조공여국회의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공여국을 상대로 원조에 대한 협상을 해왔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 정부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고 개발을 위해 원조가 필요한 방글라데시는 공여국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

들의 필요에 맞춰 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게 되면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사업을 이행하고 사업이 끝난 후 이를 지속하기 위한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 역시 달라졌다. 보츠와나의 경우 제공된 원조를 거의 100% 이행하여 공여국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실제로 원조가 투자된 교육 분야나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보츠와나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다르다. 방글라데시는 교육이나 보건 등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자하였다.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투자된 원조는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성급하고 무리하게 투자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된 원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조의 목표인 금융 분야를 포함한 경제의 효율화,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이나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결국 1997년에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택해 원조 역시 국가개발계획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한 보츠와나의 원조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여국의 영향력에 의해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택하고 국가의 주요우선순위가 아닌 분야에 원조를 사용한 방글라데시의 원조의 효과성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양국의 개발전략의 차이는 양국이 받은 원조의 효과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주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라 주장하던 이들의 의견과는 다른 것이다. 시장주도적인 정책이 이론적으로는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발전을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시장이 잘 작동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발휘하기에 시장 자체나 법, 제도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책개혁을 강요하다시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방글라데시가 겪은 위기처럼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방글라데시의 경제 구조조정에 투입된 원조 역시 제도의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막대한 금액이 원조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 현실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원조공동체의 주류를 차지한 신자유주의적 개발패러다임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에 시장주도적인 경제정책이 갖춰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차관을 수원국에 제공하고 그 조건으로 시장주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원조 역시 성공적으로 이용한 보츠와나와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개혁에 투입된 원조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무조건적인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정책개혁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 소개

한송이 Han, Songi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석사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 강선주, 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발협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15 –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서울: 논형.
-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서울: 부키.
-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과주: 한울.
- Aghevli, Bijan B., Insn Kim, and Hubert Neiss, 1988, “Growth and Adjustment; Experiences of Selected Subcontinent Countries,” in Paul Streeten (eds.), *Beyond adjustment : the Asian experienc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Bhattacharya, Debapriya and Toufic A. Chowdhury, 2003, “Financial Sector Reforms in Bangladesh: The Next Round,” *CPD Occasional Paper Series* 22 (April).
- Boone, Peter, 1996,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0, No. 2 (February).
-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4 (September).
- Dahl, Hans-Erik,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Botswana 1966-78,” 1981, in Charles Harvey (eds.), *Papers on the Economy of Botswana*, Sandton: Heinemann.
- Hansen, Henrik and Finn Tarp, “Aid Effectiveness Disputed.”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2, Issue 3.
- Harvey, Charles and Stephen R. Lewis, Jr., 1990, *Policy Choice and Development Performance in Botswana*, Hampshire: Macmillan.
- Kochanek, Stanley A., 2004, “Making of a Nation: Bangladesh: an Economist’s Tale,”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 11, No. 2 (December).
- Mahmud, Wahiduddin, 2000, “Bangladesh: Structural Adjustment and Beyond,” in Wahiduddin Mahmud (eds.), *Adjustment and Beyond: The Reform Experience in South Asia : Proceedings of the IEA Conference Held in Dhaka, Bangladesh*, New York: St. Martin’s Press.
- Mahmud, Ahmed Swapan, 2009, “Aid Conditionality and Democratic Ownership,” in The Reality of Aid-Asia Pacific Network (eds.), *Democratic Ownership and Human Rights 2009*, Philippines: IBON Books.
- Maipose, Gervase S., Gloria Somolekae, and Timothy Johnston, 1996, “Aid Effectiveness in Botswana-Botswana’s Management of External Assistance and Case Studies of the U.S./Botswana Bilateral Aid Relationship” (February).
- Maipose, Gervase S., Gloria Somolekae, and Timothy Johnston, 1997, “Effective Aid Management: The Case of Botswana,” in Jerker Carlsson, Gloria Somolekae and Nicolas Van de Walle (eds.), *Foreign Aid in Africa*, Uppsala: Nordiska Afrikainstitutet.
- Maipose, Gervase S., 2008, “Policy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Sustained Development in Botswana,”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35.
- _____, 1968, *National Development Plan 1: 1968-1973*, Gaborone: Government of Botswana.
- _____, 1973, *National Development Plan 3: 1973-1978*, Gaborone: Government of Botswana.
- _____, 1991, *National Development Plan 7: 1991-1997*, Gaborone: Government of Botswana.
- _____, 1997, *National Development Plan 8: 1997/98-2002/03*, Gaborone: Government of Botswana.
- _____, 2003, *National Development Plan 9: 2003/04-2008/09*, Gaborone: Government of Botswana.
- _____, 2009, *National Development Plan 10: 2009-2016*, Gaborone: Government of Botswana.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id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G8 Support Is Key for Progress,” <http://www.oecd.org/dataoecd/1/40/45497644.pdf> (검색일 2011.11.2).
- Planning Commission, 1973, *The First Five Year Plan(1973-78)*,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
- _____, 1978, *The Two Year Plan(1978-80)*,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
- _____, 1980, *The Second Five Year Plan(1980-85)*,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
- _____, 1985, *The Third Five Year Plan(1985-90)*,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
- _____, 1990, *The Fourth Five Year Plan(1990-95)*,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
- _____, 1998, *The Fifth Five Year Plan(1997-2002)*,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
- Quiberia, M. G., 2008, “Aid Effectiveness in Bangladesh,” *MPRA Paper*, No. 10299,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 Rahman, Aitar, 2008, “The Role of Donor Agency in Flourishing the Ec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Bangladesh” (June 22). <http://www.articlesbase.com/print/457740> (검색일 2011.10.31).
- Rahphaeli, Nimrod, Jacques Roumani, A.C. MacKellar, 1984, “Public Sector

Management in Botswana: Lessons in Pragmatism,"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709, Washington D.C.,

Sobhan, Rehman, 1981, "Bangladesh and the World Economic System: The Crisis of External Dependence," *Development and Change*, Vol. 12, Issue 3 (July).

Sobhan, Rehman, 2002(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tate and Market in Bangladesh," *Center for Policy Dialogue* (September).

Sobhan, Rehman, 2002(b), "Privatisation in Bangladesh: An Agenda in Search of a Policy," *CPD Occasional paper Series* 16 (August).

Stevens, Michael, 1981, "Aid Management in Botswana: from One to many Donors," in Charles Harvey (eds.), *Papers on the Economy of Botswana*, Sandton: Heinemann.

UN System in Botswana, 2007, "Second Common Country Assessment for Botswana" (December).

Wada, Yoshio and Ken Togo, 2008, "Development Assistance and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Botswana" (February). <http://ssrn.com/abstract=1099080> (검색일 2011.11.2).

World Bank, 1992, "Bangladesh Energy Sector Adjustment Credit Project Completion Report," *Report* No. 10700 (June).

_____. 1995, "Bangladesh Country Assistance Strategy," *Report* No. 14998-BD.

_____. 1998, "Bangladesh Country Assistance Review," *Report* No. 17455-BD (March).

_____. 1998, "Bangladesh Jute Sector Adjustment Credit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Report* No. 17461 (March).

_____. 2001, "Adjustment Lending Retrospective," *Discussion Paper* (June).

인터넷 검색자료

Bangladesh Economic Relation Division, Disbursement of Project Aid by Sector-Yearwise (1971/72-2009/2010), <http://www.erd.gov.bd/images/FlowBook/0910/tbl-3.7.pdf> (검색일 2011.11.17).

Banglapedia – National Encyclopedia of Bangladesh, Aid Administration, http://www.banglapedia.org/httpdocs/HT/A_0128.HTM (검색일 2011.11.20).

OECD.State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NEW> (검색일 2011.11.17)

World Bank Data, GDP per Capita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검색일 2011.11.5)

World Bank Data, Net ODA received (% of GNI),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ODAT.GN.ZS/countries?page=5> (검색일 2011.11.5)

World Bank Data,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countries> (검색일 2011.11.5)